

■ 유럽집행위, PVC 폐기물 처리에 관한 綠書¹⁾ 발간

- 유럽집행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PVC 폐기물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처리방안의 장·단점을 분석한 녹서를 발간하였음
 - EU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PVC와 PVC 첨가물²⁾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여 온 유럽집행위원회의 정책 실현의지가 담겨 있음
 - PVC 문제의 해결 방안을 역내 시민들 스스로 찾게 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
 - 녹서는 PVC 재활용, 소각, 매립처리 등 5개 과제를 중심으로 3년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각 처리방법의 장점 및 단점을 자세히 다루고 있음
 - 현재로서는 소각과 매립 중 PVC의 종류나 처리조건에 상관없이 어느 것이 분명한 우위에 있는 처리방안이라고 판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힘
 - 그렇지만 PVC 폐기물의 약 1/5 정도까지 밖에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재활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PVC 폐기물의 처리 경로를 계속 조사해 재활용율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음
 - 그리고 PVC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의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자료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성급히 판단해서는 곤란하다고 분석함
 - 따라서 대체물질의 선정 전에 PVC를 포함한 모든 대체 가능 물질의 전과정평가를 통해 환경 영향성을 정확하고 심도 깊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

- PVC는 유럽에서만 550만 톤(1998년)이 생산되는 등 활용도가 매우 높아 2020년에는 PVC 폐기물 발생량이 180%로 증가할 전망이다
 - PVC는 오늘날 가장 많이 이용되는 플라스틱의 하나이지만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물로 인해 환경문제를 야기함
 - 건물, 포장, 가정 및 자동차 용품 등의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음
 - 현재 PVC 폐기물 중 약 80%는 매립되며 17%는 소각 처리되고 나머지 약 3%만이 재활용되고 있음

1) 법규 또는 정책 입안 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이람

2) 납, 카드뮴, 프탈레이트 등

- 산업계에서는 PVC 처리 경로를 분명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PVC의 재활용 수준을 높인다 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처럼 전체 처리량의 18% 정도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- NGOs는 PVC의 환경 위해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안전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침
- 그린피스를 중심으로 한 NGOs는 PVC를 매립 처리할 경우에 유해 첨가물이 토양으로 용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소각해서 처리할 때에는 다이옥신과 같은 보다 독성이 강한 유해물이 자연환경으로 대량 유입될 수 있다고 주장함
 - 유럽집행위원회가 PVC에 의한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
 - 그렇지만 PVC를 재활용하는 것 역시 중금속들이 보다 많은 제품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높이므로 적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함
 - 이에 따라 그린피스는 PVC 소각처리를 바로 금지시킬 것과 PVC 재료를 다른 것으로 완전히 대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
 - 반면에 유럽비닐제조협회(The European Council of Vinyl Manufacturers ; ECVM)와 같은 전문적인 로비단체는 PVC가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강변함
 - PVC 매립처리에 대한 우려는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분해 속도를 높여 수행한, 잘못된 모사실험 결과를 과신한 탓이라고 주장함
 - 유럽집행위원회는 PVC에 사용되는 특정 유해물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함
 - 기업담당 장관인 Erkki Liikanen은 이제는 PVC 독서에 제기된 여러 방안들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
- EU의 PVC 폐기물 관리방안은 2001년 전반부에 채택될 것으로 전망됨
- 시민들의 의견을 기초로 관리방안이 수립될 것이므로 유럽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간의 협의 절차가 비교적 빠르고 용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

기 준 학(02-3669-4097, hiemjhki@shinbiro.com)